

커피숍의 조명환경 실태조사

A Study on the Illumination Environment in Coffee Shop

김현지*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안옥희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현진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1. 서론

공간형성에 필요한 모든 소재, 기구, 시설에 관계되는 물적요소를 유형요소라 하면 무형요소는 유형요소로 만들어지는 공간에 최종적인 "분위기"를 주는 '공간조성 요소'라 할 수 있다. 무형요소는 공간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는데 특히 밝기와 색은 절대적이고 미묘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 절대적이고 미묘한 힘은 이들 요소의 물리적 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인상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공간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밝기, 색, 음향과 같은 무형요소의 개발에 있다.

일시적으로 공간에 고정되는 조명기구든 언제든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고정요소이며 유형요소이나 조명기구의 형태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도 관계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물체로서 형태를 가진 조명기구와 조명의 "밝기" 자체는 요소적으로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조명환경에 관한 연구 중 공간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을 보면 주택과 사무실, 상업공간, 전시공간, 옥외공간 등 여러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상업공간에서의 조명환경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상업공간

에서는 판매라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명에만 이제까지 주목하였다. 그러나 상업공간도 그 유형에 따라 주목적이 되는 행위가 달라지므로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조명환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식과 담소가 주목적인 커피숍을 대상으로 하여 무형요소인 조명환경에 관한 조사와 실측을 실시하여 커피숍의 조명환경 계획시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대상지역은 대구시내에서 커피숍의 밀집률이 가장 높고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장소인 동성로 일대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으며, 그 중 100군데의 커피숍을 설문지와 실측을 통하여 조명환경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1월 15일에서 2월 14일까지이다. 조사시간은 조명환경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도의 측정이나 조명상태를 정확히 하기 위해 일몰 후에 실시하였으며, 테이블 위, 바텐더 위, 출입구(H:1m)의 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조도계는 Minolta 디지털 조도계 T-1을 사용하였다.

커피숍 조명환경 실측에 대한 항목은 광원의 위치, 광원의 종류, 내부 공간 조도, 공간의 크기, 색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자와 보조자가 직접 대상 커피숍을 방문하여 실측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광원의 위치

커피숍 조명에 있어서 천장조명을 광원의 위치에서 조사해 본 결과 복합형이 48%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커피숍이 여러 계층의 손님을 상대하는 상업공간이기 때문에 분위기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으로는 세퍼레이트형 33%, 세미세퍼레이트형 19%으로 나타났다. 분위기 연출이 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공간이기에 글레어가 적은 건축화 조명을 사용한 곳이 많았는데 특히 낮은 조도의 고른 빛을 천장에 부여하는 광천장을 사용한 곳이 33%이었다. 그러나 광천장은 정적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커피숍에서는 입체효과를 주기 위해 복합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통 천장조명은 전체적인 밝기에 중점을 둔 곳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벽면 조명(브라켓)의 설치 여부는 커피숍의 분위기에 따라 사용한 곳이 62%이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곳은 38%로 나타났다.

스탠드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 64%로 사용하는 곳보다 훨씬 많았으며 특별한 분위기를 내는 것 외에 밝기의 역할은 적기 때문에 보조적 분위기를 위한 장식적 요소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기에서는 명시조명보다는 벽조명이나 스탠드를 이용한 국부조명을 많이 사용하여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적당하단데 의외로 적었다.

3-2. 광원의 종류

천장의 광원 종류를 살펴 본 결과, 백열등과 할로젠을 동시에 사용하는 곳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할로젠이 38.4%이었으며, 3가지 이상의 광원을 이용한 경우는 12.1%, 백열등이 4%로 가장 낮았다.

벽면 광원의 종류로는 백열등이 68.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백열등은 대체로 소형의 점광원으로서 원하는 곳으로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그 다음으로는 할로젠이 20.4%로 많았으며, 형광등은 7.4%, 백열등과 할로젠을 동시에 사용한 것은 3.7%로 나타났다. 또한 스탠드 조명은 93.8%가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광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조명 방법

천장의 주된 조명방법은 직접조명이 95.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확산 조명은 4.2%이었다. 또한 벽면의 주된 조명방법은 전반확산조명이 35.7%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다음은 직접조명 26.8%, 간접조명이 23.2%,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이 동시에 사용된 곳이 14.3%로 나타났다.

스탠드는 전반확산조명이 53.8%이었으며,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이 동시에 사용된 조명이 26.9%, 간접조명이 19.2%를 차지했다.

3-4. 공간의 크기와 조도

커피숍 공간 크기는 부엌이나 화장실을 제외한 상업공간 크기로 조사 대상 커피숍의 면적은 21평에서 30평 사이가 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1평에서 40평 사이가 25.8%를 차지했다. 또한 20평 이하는 20.4%, 41평이상은 14%로 나타났다. 테이블 높이는 61~70cm가 76.7%로 가장 많았으며, 60cm 이하가 6.1%, 71cm 이상은 17.2%이었다. 바텐드 높이를 조사한 결과, 91~100cm가 36.9%, 101~110cm가 32.6%이었으며, 90cm 이하가 20.7%, 111cm 이상은 9.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커피숍의 테이블과 바텐드의 조도는 100 lx 이하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101~200 lx

가 20.0%로 나타났다. 커피숍 내부공간의 평균조도는 73 lx로 상업공간 중에서는 내부 공간 조도가 어두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바텐드 윗면의 조도는 120 lx 이하가 55.0%, 221 lx 이상이 20.0%를 차지하였다.

출입구는 120 lx 이하가 61.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조도는 95 lx로 주목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내부공간 보다 밝게 나타났다.

3-5. 내부공간의 주조색

커피숍 인테리어 환경에 있어서 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조색 조사결과, 베이지색(흰색 포함)계열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갈색이 22%로 많았다.

액센트색의 사용은 빨강색이 34.4%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다음은 초록색을 26.0% 사용하고 있었다.

가구색의 경우는 초록색이 23.5%로 가장 많았으며, 빨강색과 갈색이 각각 17.3%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그 외 베이지색과 분홍색이 각각 11.2%였고, 검정색 8.2%, 파랑색 6.1%를 차지하고 있었다.

4. 결론

이제까지 상업공간의 조명환경은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거나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강조조명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상업공간 중 식음료공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품만을 판매하는 조명계획과는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 즉, 물건을 보기만을 위한 명시조명뿐만 아니라 분위기 조명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행태나 상권의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한 조명의 질적인 방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커피숍에 대한 조명 실태 조사를 행한 연구는 극히 드물지만 최근 현대 도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피숍의 양적 팽창에 따라 바람직한 커피숍 조명계획의

방향제시가 요구된다. 이에 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의 내부공간 조도가 74 lx로 조금 어두운 편이었다.

또한 커피숍의 경우 손님 회전을 빨리하고 셀프 형태를 띠고 있는 커피 전문점의 경우는 200-300 lx로 하고 아늑하고 편한 조명으로 하기 위해서는 100-200 lx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데, 본 연구결과 현재의 커피숍 조명실태는 약간 낮은 편이었다. 또한 커피숍은 통로나 서비스 공간은 저조도로 하고 테이블 공간을 강조하여 밝히는 불균일한 조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조사 결과 전반조명과 직접조명을 사용한 균일한 분포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커피숍의 바람직한 조명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5. 참고문헌

1. 照明學會, New Edition Lighting Data Book, Sae Jin Publishing Co. 1989.
2. 日本照明學會誌編, ライティングハエドブ, オーム社, 1987.
3. M. David Egan 著, 朴鍾孝 譯, 建築照明概論, 技文堂, 1992.
4. 照明學會 編, 光をはかる, 日本理工出版會 刊, 1987